



발전노동자

- 박살! 발전매각
- 분쇄! 구조조정
- 사수! 민주노조
- 쟁취! 원직복직

119호 2010. 03. 12(금)

<http://baljeon.nodong.net>

|| 발행처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 발행인 박노균 || 전화 02-3456-8157 || 팩스 02-3456-8159 || e-mail baljeon@baljeon.nodong.net

발전노조 제5대 임원선거

박종옥/박대원/김현동 후보조 당선



2월 11일 입후보등록공고 이후 약 한달간 진행된 발전노조 제5대 집행부 임원선거에서 기호3번 박종옥/박대원/김현동 후보조가 당선되었다. 세후보가 경합을 벌인 이번 선거는 3월 9일 1차 투표를 거쳐, 3월 11일 결선을 치루었다.

본부별로는 남동(여인철), 남부(이종술), 동서(김대환), 중부(유춘민)의 당선자가 확정되었으며, 서부본부는 재검표가 진행중이다. 지부별로는 재선거 또는 결선을 앞둔 삼천포화력(결선), 평택화력(결선), 호남화력(재선거), 남부분사(사고지부), 서부분사(사고지부)를 제외한 35개 지부의 지부장도 선출이 완료되었다.

투표내용

- 선거인수 : 6,709명
- 투표자수 : 6,087명 (90.73%)
- 기권 : 622명 (9.27%)

투표결과

- 선현규 후보 : 2,966표 (48.73%)
- 박종옥 후보 : 3,062표 (50.30%)
- 무효 : 59표 (0.97%)

본부장&지부장				
			발전교육원지부	도서전력지부
			당선 정홍섭	당선 박상팔
동서본부	서부본부 (재검표)	중부본부	남동본부	남부분부
당선 김대환	김영덕 / 최명기	당선 유춘민	당선 여인철	당선 이종술
당선 남태섭	태안	당선 이희복	삼천포 (결선중)	당선 김갑석
당선 울산	당선 윤동렬	당선 김준석	당선 박갑정 / 이정임	당선 하동
당선 진현주	당선 평택 (결선중)	당선 안천	당선 영흥	당선 부산
당선 호남 (재선거)	당선 미완범 / 최중식	당선 김복하	당선 영동	당선 신인천
당선 동해	당선 서인천	당선 제주	당선 윤종원	당선 남제주
당선 필승현	당선 유승재	당선 부관우	당선 분당	당선 양재부
당선 일산	당선 신동호	당선 서울	당선 김기돈	당선 영남
당선 정주필	당선 청송	당선 오세민	당선 여수	당선 최응우
당선 신청	당선 김홍철	당선 양양	당선 배찬호	당선 청평
당선 본사	당선 삼랑진	당선 최지홍	당선 두주	당선 조성신
당선 김용진	당선 김윤희	당선 본사	당선 예천	당선 한림
	당선 본사 (사고지부)	당선 윤재윤	당선 김주벽	당선 박영국
			당선 본사	당선 영월
			당선 김종남	당선 정해원
				당선 본사 (사고지부)

단체협약 쟁취! 구조조정 분쇄! 인력충원 쟁취! 성과경쟁 분쇄! 전력산업 통합!

발전-한수원 노조통합을 위한 과제

발전노조 제5대 임원선거 과정에서 ‘한수원노조와 발전노조의 통합’이 선거공약으로 등장했다. 이 공약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현재 선거가 진행중인 한수원노조 입후보자들의 서신이 발전노조 위수사 후보(3월 11일 당선)의 홍보물에 소개되기도 했다.(그림 참조)

발전노조와 한수원노조 통합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발전노조 차기집행부와 한수원노조 현집행부가 충분히 주장하고 있고, 조합원들 역시 긍정적으로 여기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발전노조 4대 집행부 역시 양노조 통합에 대해 의지를 갖고, 일찍이 비공식 경로를 통해 한수원노조에 논의를 제안한 바 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진전을 보이지 못하던 통합논의가 이번 선거공간을 통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그 길이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이미 10여년을 떨어져 지내 온 만큼 양 조직간 문화적 차이가 있고, 통합을 방해하기 위한 정권과 사측의 탄압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노조통합을 위해서는 치밀한 준비와 전체 조합원의 결의를 모아내는 일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첫째, 발전노조와 한수원노조의 통합은 기존의 ‘전력연대 산별방침’, 발전노조 2007년 정기대대에서 확정된 ‘공공운수연맹 산별방침에의 복무’와 충돌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기존의 연대단위들과 적절한 관계를 재정립하는 데에는 상당한 지혜와 용기가 요구될 것이다.

둘째, 상층부만의 논의에 머물러서는 안되며, 현장의 적극적 동의를 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수원노조 선거과정에서도 노조통합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조합원으로부터 관심받기를 바란다.

셋째, 신임 집행부는 초기부터 통합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함께 논의하고 공동사업으로 만들어야 한다. 집행부 출범 직후 있을 정기대의원대회에 사업계획으로 노조통합(안)이 제출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기본적으로는 공동요구안의 제출과 함께 공동교섭/공동투쟁/공동타결의 원칙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힘있는 공동사업이 차질없이 진행어 한수원노조와 발전노조 조합원간에 신뢰가 형성될 때,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통합노조가 건설될 수 있을 것이다.

한수원, 발전노조의 통합 재건과 도약의 길!

통합이 대안입니다
MB정권의 구조개혁 폭풍우, 대책 없이 '투쟁'만 외치시겠습니까?
한수원노조와 발전노조의 통합면 파괴력으로 정권의 민영화 음모를 쫓고 공시화료!
조합원의 고용과 권익을 위한 최선의 선택입니다.

통합, 정말로 가능한 겁니까?
한수원 노조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우리가 결심하면 됩니다. 한수원노조와의 긴밀한 협의로 통합로드맵을 추진하겠습니다!

발전노조 조합원 동지 여러분께
그동안 발전노조 조합원 동지들이 보여주시신 선도적인 투쟁에 감사드리며, 용기있는 발전동지들을 존경합니다. 발전노조에 대한 단협 해지, 정부와 회사의 탄압은 발전노조 만의 문제가 아니라 곧 닥쳐올 한수원의 미래라는 것을 한수원노조 조합원 동지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비록 여러분이 직접 확인할 기회는 없었지만 한수원노조 내부에서는 이러한 현안에 대해 고민하고 준비하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분사된지 만 9년, 이제 10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동안 발전과 한수원은 상황과 신념에 따라 각자의 길을 걸어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념박정권이 선진화를 운운하며 구조개혁 사전직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기업 선진화는 우리 전 역산업을 외국지본과 재벌에게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노조 무력화, 해고가 쉬운 노동법 개정, 전기요금 인상이 되면 다음은 민영화입니다. 우리 전력노동자는 근로조건을 사수하고 나아가 국민의 기본권, 국가경제의 버팀목인 에너지 공기업의 공공성을 사수해야 합니다. **이 투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합니다. 그 시작은 작은 차이를 극복하고 발전과 한수원이 하나가 되어 투쟁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지난 기간 활동에 대해 발전과 한수원 서로의 평가가 다르고 차이가 있을 줄로 압니다. 함께 투쟁하기에 앞서 신뢰가 필요하다는 것도 잘 압니다. 그러나 지금은 무엇이 얼마나 다른가 보다 공동의 문제가 무엇이고 어디까지 함께 할 수 있는지를 따져야 할 시점입니다. 작은 차이로 기르기도는 동침 수 있는 데까지 힘을 모아야 합니다. 저는 발전과 한수원이 연대를 넘어 전력과 에너지노조가 하나가 되고, 나아가 공공부문 노조의 "통합으로 가는 것이 노동운동의 시대적인 요구"라고 믿습니다. 지금이 위기라는데 발전과 한수원 모두가 공공과 있습니다. 원자력도 발전노동자입니다. 우리가 힘을 모아 국민과 함께 하는 투쟁, **발전노동자가 해되는 투쟁으로 갑시다.**
한수원 노조 위원장 김선재 올림
동지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발전동지들 우리 함께 갑시다"

한수원노동자와 발전노동자는 지금도 사번을 같이 쓰고 있는 동료입니다. 한수원노조와 발전노조가 하나가 되어 통합노조를 만드는 것은 정권이 강제로 갈라놓은 발전노동자들이 하나로 뭉치는 과정이며 나눠져서 약화되었던 투쟁력을 복원하는 길이라 확신합니다.

발전과 한수원노조가 통합하여 강고히 결합할때 96%전력생산을 담당하는 파괴력을 갖게 될 것이며 그 힘으로 기만적인 공기업선진화정책을 분쇄해 낼 수 있습니다.

한수원노조와 발전노조가 통합하여 하나가 되고 이를 발판으로 전력그룹사 노조를 견인해내는 방향으로 함께 나아갔으면 합니다.

이인희전 전력노조 본사지부장, 한수원노조 월성본부 본부장(출미중) 드림